

##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27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27회, 지혜시편 장르, 시편 19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장르를 소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시편, 즉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긍정적인 시편 과 신정적인 시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인 시편 1편에서 지혜와 토라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 시편도 훈계이자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시편인 시편 1편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보았습니다.

시편 49편과 시편 73편과 같은 신정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 시편이자 교훈 시편인 시편 19편과 같은 또 다른 시편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일반계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토라와 특별계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기본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두 가지 계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요점은 그가 일반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특정한 도덕적 계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칭찬의 두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지혜로운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욕기 28장과 잠언 30장에서 보여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온 하늘을 아시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아시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에게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순수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사상가의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이나 전지하심이라는 첫 번째 연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히 1절부터 4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여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시편을 주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론적 메시아적 접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신약성서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역사적 해석적 주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궁창이 선언합니다. 4B 실제로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탠자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에는 실제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궁창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후반부에서 특히 아들 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 내 앞에 시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궁창에 관한 첫 번째 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궁창의 찬양의 일시적인 보편성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언제나 당신의 영광과 지식을

나타내십니다. 4절에서 그는 공간에서의 그분의 보편성, 궁창의 찬양의 그분의 공간적 보편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그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절과 3절은 선언의 동사이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위의 하늘은 그의 작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말이 없다고 그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무 말이 없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한 구절에서 의사소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짝수 구절에서 그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 계시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 그는 다시 공간을 포괄하는 태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태양은 매일 존재하며 우주에 존재합니다. 6절에 보면 땅 끝에서 솟아올라 땅 끝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우에 두 가지 은유나 직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가 태양을 신랑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그것이 태양의 신선함, 새로움, 아름다움, 활력,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는 자신의 코스를 즐겁게 달리는 레이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태양만큼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둘 다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거리 주자입니다.

누구도 태양만큼 멀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비유는 그분의 충만함을 말하며 그분의 힘과 보편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한, 내가 생각하는 바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는 창조를 가져온 말씀이요, 창조를 성취시키는 대리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시편 8편에서 우리가 한 일을 여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계시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창조주께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셉 애디슨(Joseph Addison)이 시편 19편을 의역한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엄숙한 침묵 속에서 모두가 어두운 지구의 공 주위를 돌고 있지만 말입니다. 빛나는 구체 속에서는 실제 목소리도 소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성의 귀에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소리를 발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인류도 칸트처럼 그에게 신에 관해 즉각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리는 없지만 이성의 귀에는 아직 소리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본다.

아, 나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모두가 어두운 지구의 공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빛나는 구체 속에서는 실제 목소리도 소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성의 귀에 그들은 모두 기뻐하며 영원히 빛나며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발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손은 신성하십니다. 창조와 그분의 지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이제 우리는 토라의 도덕적 탁월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토라의 어휘를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토라의 본질과 토라의 보상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의 본질은 도덕적 완전성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의로우며 영원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보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삶 자체인 지혜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일곱 가지 완전함으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무엇보다도 주의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펀전의 논평을 좋아합니다. 그는 거기에 더하는 것은 범죄이고, 바꾸는 것은 반역이며, 빼는 것은 중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인용문이 있습니다.

스펠전이에요. 강해설교를 위한 좋은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강해설교를 위한 좋은 교훈입니다.

응.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완벽합니다. 그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완전히 확실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주님의 증언은 폭넓은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는 보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정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논평했는데, 이는 그것이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부러지거나 뒤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드럽고 직선적입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정결하다고 말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그것이 빛날 때까지 닦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순수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하다. 그리고는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흠집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빛날 때까지 닦는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즉, 그 안에 혼합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썩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9b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법도가 참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법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꾸준해요.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그것들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곱 가지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키우지 말고 교회를 키우세요. 충분하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토라의 보상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시편 22편처럼 활력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슬프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오베드가 나오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됩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노년에도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읽으면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의 증거입니다.

즉, 지혜는 기술이며 생명을 주고 사회적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사는 능력을 주셨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는 잠언과 동일하지만 단순합니다.

소절은 부정적이다. 그는 바보의 일부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에 열려 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그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단순한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열려있습니다. 그는 배울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그는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현자의 말이지만 이 두 책에서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물론 이는 올바른 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예술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예술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양과 색상이 있는 실제 객관적인 그림이 있고 거기에 어떤 상상력을 붙여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예술을 접하게 되면 그것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 객관적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보는 방식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 그림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그림 중 가장 위대한 그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빈치라고 생각합니다. 미끼를 넘어가면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나리자에 대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기이하다. 일종의 수수께끼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본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림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고 있었고 모두가 모나리자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저 미소가 뭔지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욕조에 오줌을 싸는 어린 딸의 미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상황에서 딸의 얼굴에서 똑같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에 완전히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깨끗하고 빛나며 명령이 눈을 밝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금 곧 많은 순금 보다 더 사모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언을 할 때 언급했듯이 금은 식탁 위에 음식을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식탁 주위에서 교제를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금은 당신에게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금은 여성에게 보석과 모피를 줄 수는 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당신에게 집을 줄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집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탁 주위의 교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사치와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사랑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수행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벌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맛이군요. 반면에 시편 2편의 반역자들은 그것을 괴로운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토라와 그 은총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성인으로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의 종은 이를 통해 죄를 피하라는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키면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큰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종이 경고한 대로 그를 두 가지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숨겨진 죄를 위한 두 가지 청원입니다. 한 가지 청원은 숨겨진 죄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손한 사람들로 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게 13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숨겨진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레인과 나는 매일 아침 주님의 전례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죄를 안다면, 그 죄를 명명하고 버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 우리는 거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죄가 정경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음악 감독을 위한 성경 정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알려진 죄뿐 아니라 숨겨진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두 번째 요청은 하나님께 그를 불손한 사람들의 통치에서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배교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방황하기 쉬운 주님,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인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번역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앞에서 번역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그건 어느 페이지에 있었나요? 328. 응.

좋아요. 그의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그의 숨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후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배교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중 누구도 사탄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교한 배후에는 사탄과 악귀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흠이 없이 순전함을 지키고 큰 죄에 대하여 무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무엇이 큰 범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샤 라는 단어는 반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샤를 범하는 사람은 단지 여호와께 반역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교하지 않게 지켜 주소서. 그의 결론은, 나의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당신 보시기에 기쁘시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 앞에 받아들임의 은혜를 구하는 궁중의 의례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늘의 찬양 중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새 언약에 표현된 토라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즉,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불손한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의 반석이시며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구원의 반석이요, 보호하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청원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의 말이 은혜를 받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의 정경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악마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교하는 것을 막고,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사탄을 대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응.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시편을 통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유혹에도 우리를 지켜 주소서.

우리를 이끌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흠이 없고 큰 범죄에 대하여 순수하리라 하느니라.

큰 범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다. 현대 신학에서는 배교를 우리는 배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글썄, 나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응.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야합니다. 그는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우리 모두는 방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그게 고민이었던 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등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지 알고 있으며 저를 잘못된 상황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나는 큰 범법의 잘못된 범법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유대학에서 장학금을 제안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두려웠습니다.

나는 시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교수님들께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큰 범법을 범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27회, 지혜시편 장르, 시편 19편입니다.